

군산시 관광객 올해 500만명 넘었다

접근 편리 고군산군도 294만명 찾아 최고 인기 색다른 관광명소 제공·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주요

군산시를 찾은 관광객이 500만명을 넘어 서면서 지역경제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과 고군산군도의 접근 편리성을 기반으로 지

난 11월말 기준, 관광객 수가 515만명을 기록했다며 이에 따른 경제효과는 2937억 원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294만명)와 시간여행마을(74만명)을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대역사박물관과 철새조망대, 청암산 오토캠핑장, 테디베어 박물관 등의 유류 입장객도 84만명에 달하고 있다. 시는 관광객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차별화한 군산시간

여행축제와 군산야행 ▲관광명소마다 색다른 개발 사업 추진 등을 꼽았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관광의 양축인 천혜의 비경 ‘고군산군도’와 한국관광의 별 ‘시간여행마을’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지속해서 발굴해 토탈관광지로 면모를 갖추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2019 정읍형 마을 만들기’ 시민창안대회 참가자 공모

정읍시가 더불어 활기차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2019 정읍형 마을 만들기 시민창안대회’ 참가 공동체를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마을공동체와 소규모 창업 공동체 2개 분야이며 접수는 내년 1월4일까지다. 정읍시민창안대회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공동체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실행으로 진행하는 정읍형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한백통일재단 정읍시지부 창립 1주년 기념식. 한백통일재단 정읍시지부(상임대표 용화숙)는 최근 순정축협 명품관에서 100여명의 회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 이어 탈북민이자 통일교육전문가인 한수연씨의 ‘평화의 길 함께 걷는 길’이라는 주제강연도 열렸다. <한백통일재단 정읍시지부 제공>

고창군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대상 최우수 친환경 지방자치단체상 수상

고창군이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최한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로 선정돼 대상을 받았다. 올해 에코시티는 고창군을 비롯 서울 양천구, 대구 중구, 부산 동구가 선정됐으며 이들 지자체는 ‘최우수 친환경 지방자치단체상’도 함께 수상했다. 고창군은 올해까지 5년 연속 수상으로, 그동안 추진한 친환경도시 조성 노력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창읍성 일원에 생태휴식공간 고창 자연마당 조성, 국가지질공원 인증,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일원의 생태태운 조성, 주민

원 처리 등 지역민 생활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골자로 이뤄진다. 환경 교육 등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행정과 군민이 하나가 돼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생태적인 환경정책에서도 높은 점수가 주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종합대상 5년 연속 수상은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이 어려움 속에서도 생태환경을 지켜가는 소중한 가치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민선 7기 군정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생태관광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나주시, 태양광 사업으로 에너지복지 확대 ‘에너지복지재단’ 설립 수익금 재투자 계획수립 용역 보고

나주시가 ‘에너지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발전사업 수익을 시민 에너지 복지 확대에 투입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최근 청사 이화실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부응하기 위해 ‘나주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이 용역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통한 발전수익의 재투자 및 시민 에너지복지 확대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 용역을 맡은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시 유희부지 현황과 개발여건 분석’, ‘경제적 타당성 검토’, ‘주민참여 태양광

발전사업 방안과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나주시가 용역보고를 통해 검토 중인 ‘태양광 발전 사업’ 모델은 총 5가지다. 시민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민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기관 복합형’, 나주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나주시 주도형’, 마을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수익금 일부를 공공복지에 사용하는 ‘마을기업형’ 등이다. 특히 나주시는 시 주도의 유희부지 발전사업 허가, 특별회계 설치 등을 추진할 전담기구로 ‘에너지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신협중앙회, 전주 한지 특화산업 육성 MOU 체결

신협중앙회와 지역특화산업 육성 프로젝트의 첫 타자로 전주 전통 한지를 선정했다. 신협중앙회와 전주시, 전주한지사업 협동조합은 최근 ‘전통 한지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상호협력 협약(MOU)’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신협 쇼핑몰에서 한지 관련 제품을 팔 수 있도록 하고 한지 수의 개발을 지원한다. 또 전주시와 함께 한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지체험 프로그램과 사회공헌 사업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MOU는 신협중앙회의 지역특화산업 육성 프로젝트의 첫 성과다. 신협중앙회는 앞서 지난 9월부터 전담팀을 설치하고 지역별로 이야기거리가 있는 특화산업과 신협의 지원 방안을 찾아왔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별기에 브뤼셀의 ‘오줌싸개 소년’ 동상이 스토리텔링으로 막대한 관광수익을 끌어내고 있다”며 “신협은 한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지역 스토리를 발굴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끌어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내년 5월 준공

익산시는 농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995㎡)를 내년 5월 준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합열을 다송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공센터를 착공했다. 이곳에는 농산물 처리시설, 건식가공실, 습식가공실, 포장실이 마련돼 농민들이 쟁류, 음료류, 건조식품, 분말류, 말랭이류, 조청류, 피클류를 생산할 수 있다. 시는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



익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예상도. <익산시 제공> 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설66주년

전원주택, 부지 급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2680-9685

덕남동 임야 1~2년내 대박납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5100만원(일시불조정가)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문의. 010-6834-7400